Sungshin
Membership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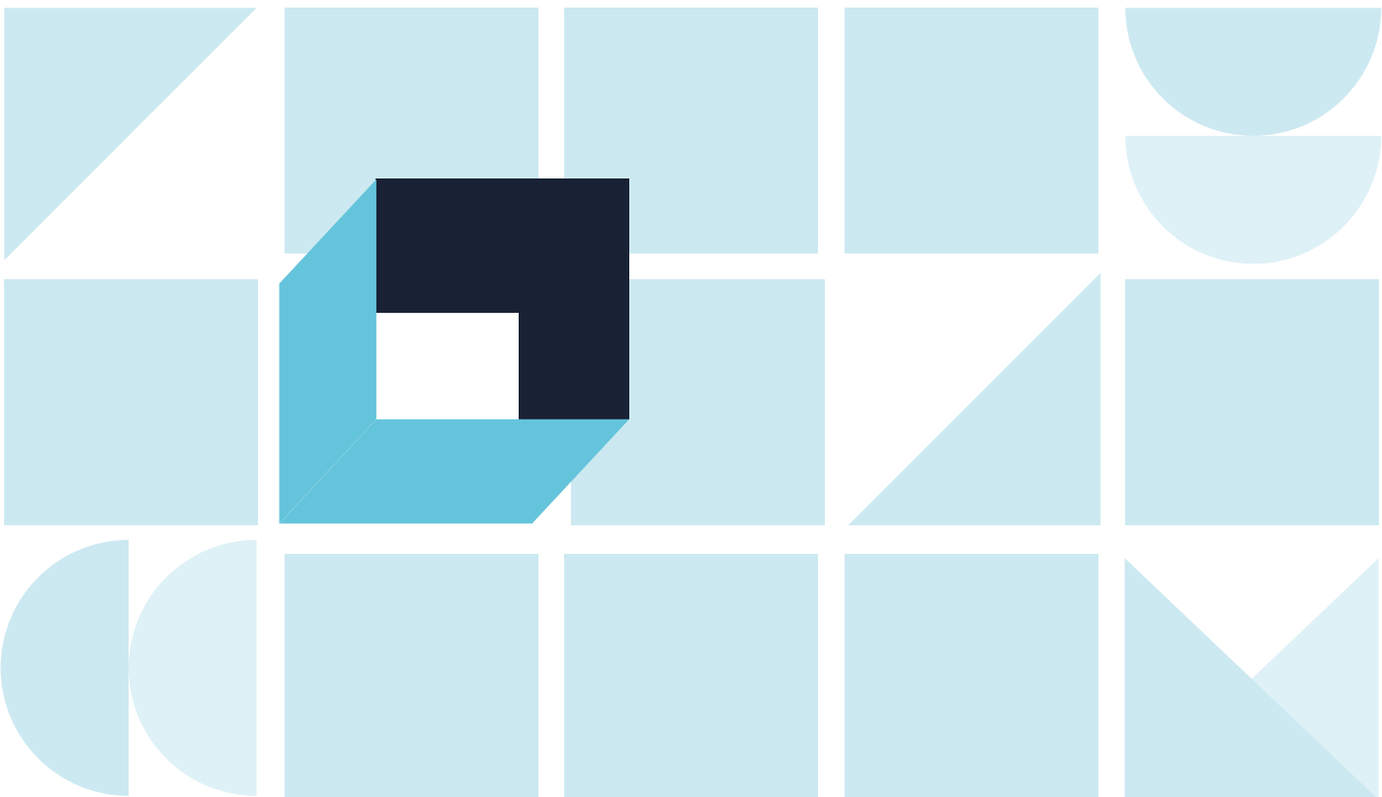
기본을 만드는

성신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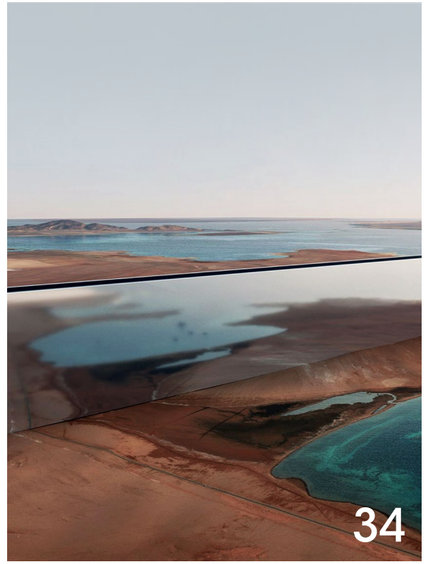
2023 Winter **Vol. 110**

변 화 를 일 으 키 는 한 걸 음

POTENTIAL



CONTENTS



변화를 일으키는 한걸음
POTENTIAL

누구에게나 있는 잠재력, 어떻게 발굴하고 가공하여 성장하는가에 따라 가치가 부여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다른 시각에서 보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신년호 주제는 '잠재력'입니다.

2023 Winter **Vol. 110**

THEME

04 **신년사**
회장님 신년사

06 **Inspiring**
고이 잠든 잠재력, 깨우소서!

08 **Secret Code**
불가능은 없다
잠재력을 끌어낸 영화 속 리더

12 **High-Five**
성신의 글로벌한 미래, 우리가 책임진다

16 **Coaching**
완벽주의자 리더와 성에 차지 않는 팀원들

PEOPLE

20 **#코드네임**
성신의 안전과 보건은 우리에게!
총괄안전본부 전사안전보건팀

22 **감성피드+**
"~덕분에 힘이 나요"
성신 사람들의 에너지원

26 **구독 맛보기**
새해 맞이 건강을 구독해 봤습니다!

30 **미식투어맵**
떡볶이에 진심인 성신 사람들의
<떡동여지도>

CULTURE & INFO

34 **알쓸뉴잡**
사우디의 상상은
현실이 될까 '네옴시티'

38 **헬시플레저**
추울 때 더 위험한
뇌졸중&심근경색 신호 미리 알기

40 **감수성 class**
'요즘 사람'은 그런 말 안 쓴대요~
언어 감수성을 높여 봐요

44 **안전캠페인**
언제든 쓸 수 있게 소화기를 점검해요

45 **SUNGSHIN NEWS**
성신 뉴스

46 **FAMILY NEWS**
사우 경조사

성신사람들

발행일 2023년 2월 15일
발행인 김태현
발행처 성신양회 주식회사
www.sungshincement.co.kr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태화빌딩 7층
Tel. 02-735-8801/ 02-3782-7000
Fax. 02-3782-7049
편집위원장 한인호
편집위원 신기준, 배성표, 진유진, 박만수, 정홍주, 양가람
진행 이현석, 나현일, 최나라
기획.편집.디자인 (주)대통기획
Tel. 02-2269-3613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기사들은 각 필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들로써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癸卯年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2023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친애하는 성신 가족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건한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다가오는 1년을 기대해 봅니다. 지난 2022년은 국내외적으로 어느 해보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 금리 인상, 환율상승 등 거시경제 요인들이 급속히 악화되어 경영활동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내외에서 소임을 훌륭히 수행해 주신 성신 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경영 환경은 더 혹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속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이슈로 인해 고물가와 고금리,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년 더 강조되는 탄소중립 같은 친환경 과제도 기업의 책임을 점점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 위축되기보다는 현명하게 극복해간다면 위기 속에서도 얼마든지 재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2023년 경영방침을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으로 유지하고 다음과 같이 세부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국내외 각 사업 부분의 '수익성 강화'입니다.

사업의 저수익성 구조가 만성적인 문제로 고착화되기 전에 개선해야 합니다. 올해는 각 사업 부문이 좀 더 구체적이고 수치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원가절감 방안도 지속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는 리스크관리가 경영 성과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대외적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차별화된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회사의 경쟁력은 위기를 극복해 가는 경험을 통해 축적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꾸준한 '투자와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기업이 영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래를 위한 공부와 투자를 꾸준히 실행하고 향후 성신이 탄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신의 나아갈 방향을 위한 '비전' 제시입니다.

성신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을 수립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수립해서 미래를 위한 등대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임직원이 공감하는 비전을 수립해서 다 함께 힘을 합쳐 성신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신 가족 여러분

새해에는 더 큰 희망을 품고 항상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합시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2023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1월 2일

회장 **김 태 현**

글 편집실

고이 잠든 잠재력, 깨우소서!

누구에게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시 보고 새롭게 의미와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상황, 재료, 정보, 도구, 심지어는 당면한 문제나 자신의 단점까지 새로운 시선으로 보아야 한다. 마치 태풍에 유실된 90%의 사과를 태풍에서도 살아남은 10%의 사과로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처럼.
자기계발이 자신에게 없는 잠재력을 만들어 내는 발명에 가깝다면 '재정의'는 미처 모르던 잠재력을 찾아내는 발견이다. 자기계발은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하지만, '재정의'는 열악한 상황 '덕분에' 새로운 잠재력을 발견해 낼 수 있다.
- 조용민, <언리시> 中 발췌 -

작업 빈칸을 채워 보세요

다들 몰랐지?

사실 나는 _____ 능력자야~

_____란 말 덕분에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걸 깨달았어.

내 안에 잠들어 있는 _____ 깨우는 2023년이 될 거야!

글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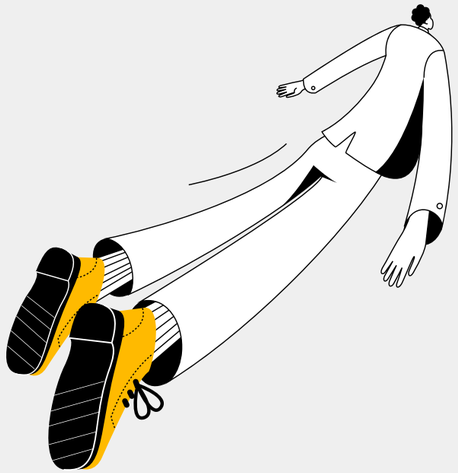
불가능은 없다
잠재력을 끌어낸

영화 속 리더

리더는 어떻게
팀원들의 잠재력을
깨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성과를 내고, 결과를
개선했을까?

네 편의 영화 속
각기 다른 인물들이
팀원들을 북돋았던
이야기를 통해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Nothing is impossible”



<머니볼>의 빌리빈, 저비용 고효율
데이터 속에 숨은 잠재력 발굴

출처: 다음영화

<머니볼>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프로야구 구단인 ‘오클랜드 애슬래틱스’의 단장을 맡고 있는 빌리빈의 실화를 영화화한 것이다. 빌리빈은 경제학을 전공한 피터를 우연히 만나 기존 선수 선발 방식과 전혀 다른 머니볼 이론에 도전했다. 머니볼 이론은 기존 선수 평가에서 중요하게 여긴 타율, 홈런, 도루가 아니라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출루율에 주목해 낮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 야구 운영 기법이다. 출루율은 선수가 타석에 나왔을 때 아웃을 당하지 않고 주자로 살아있을 확률이다. 타자의 안타 능력만 보여주는 타율과 달리 출루율은 타수, 안타, 사구, 볼넷 등 타석에서 발생하는 많은 상황들을 보여준다.

“지암비(다른 팀으로 스카우트된 스타플레이어)
를 대신할 선수는 없어요.
대신 여러 선수를 조합해 새로운
지암비를 만들 계획이에요.”

- <머니볼> 빌리빈 대사 中 -

빌리빈의 구단은 시즌 초기 연패를 거듭해 야구의 통설과 관행을 무시한 데이터 야구는 가능성이 없어 보였지만, 나중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다. 그는 결과 위주의 선발 방식에서 탈피하여 선수들의 숨은 재능을 발굴해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빌리빈의 데이터 기반 리더십

#팀원관찰 #낙인주의

데이터를 기반한 리더십은 객관적인 숫자를 통해 성과보다는 잠재력을 기준으로 팀원을 관리한다. 이 유형의 리더는 조직 성과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팀원에게 적용한다. 조직마다 높은 성과를 창출할 잠재력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다르고, 사람의 행동이나 내면을 숫자로 한정 지어 해석하는 것은 쉽게 낙인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리더는 팀원 개개인에 대한 관찰을 충분히 한 후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굿 윌 헌팅>의 숀 맥과이어, 티칭보다 코칭
마음 치유로 잠재력에 동기부여

출처: 다음영화

<굿 윌 헌팅>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으나 자포자기의 삶을 살던 청년 '윌'이 심리학 교수 '숀'과의 만남을 통해 변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이다. 윌은 세계 최고의 공대 MIT에서 일하는 청소부로 하루는 한 교수가 복도 칠판에 써 놓은 난제에 대한 해답을 그 자리에서 써 내려갔다. 출제자였던 램보 교수는 그의 재능을 키우고자 했지만, 마음의 상처로 세상과의 문을 굳게 닫은 윌에게 수학적 재능은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였다. 결국 램보 교수는 윌을 심리 상담사인 숀에게 데려갔다.

숀은 윌과 친구처럼 편안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티칭이 아닌 '코칭'을 했다. 티칭이 선생님과 제자 같은 수직적 개념이지만, 코칭은 친구이자 조력자와 같은 수평적 개념이다. 숀은 윌의 상처를 파악하고 공감하며 진심으로 도왔다. 어둡기만 했던 윌에게 진정한 인생의 스승이 되어준 숀은 인생과 투쟁하는 지혜와 삶의 상처를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줬다.

1000% 공감해 주는 숀의 코칭 리더십

#실패도_배움 #언제나_존중

코칭 리더십은 팀원에게 문제 해결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리더가 팀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내도록 이끄는 것이다. 리더는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팀원이 실패를 배울 수 있는 경험으로 여기게 하는 '성장 마인드셋'과 팀원이 자기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시간 낭비라 여기지 않는 '존중 마인드셋'이 강점이다.

<위플래쉬> 플레쳐, 카리스마 리더십
인간의 한계에서 깨어난 잠재력

출처: 다음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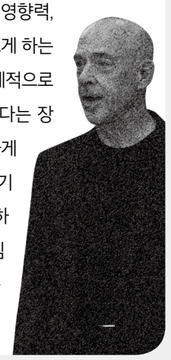
<위플래쉬>는 음대 최고의 실력자이지만 광기, 폭군, 독재자란 연관 검색어를 가진 교수 플레쳐와 그의 밴드에 소속된 앤드류의 대결을 그린다. 위대한 드러머를 꿈꾸는 앤드류는 플레쳐의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된다. 숨조차 쉴 수 없는 극한의 공포로 정신적 한계에 다다르고,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연습해 육체적 한계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플레쳐는 자신의 디렉션에 따라오지 못하는 앤드류를 하찮게 여겼다. 플레쳐의 폭언과 학대 속 앤드류는 차츰 성장해 나가며 성취감을 맛보고 앤드류는 드럼에 집착하게 됐다. 폭군 교수 플레쳐와 미친 학생 앤드류는 무대에서 신들린 연주를 하고 관객들은 멎을 듯한 전율을 느끼며 영화는 끝난다.

영화 속 플래쳐의 리더십을 두고 사람들의 평은 폭군과 카리스마로 나뉘었다. 최고가 되고자 하는 제자의 오기를 북돋고 자극하는 플레쳐만의 독특한 지도법이라는 반면, 인격모독과 폭력을 제자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리더십이라고 포장하는 합리화라는 의견이다.

양날의 검! 플레쳐의 카리스마 리더십

#빠른성과 #경직된분위기

카리스마 리더십은 리더의 천부적인 능력, 영향력, 독특한 매력 등으로 팀원 스스로 리더를 따르게 하는 것이다. 이 유형의 리더는 명확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제한된 시간 내에 높은 성과물을 낸다는 장점이 있다. 팀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활용한다.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에 팀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위압적이거나 지배적인 편이라 팀 내의 대화를 경직시킬 수 있고, 아이디어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죽은 시인의 사회> 키팅, 변혁적 리더십
제자 잠재력 깨운 구성원 중심 사고

출처: 다음영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는 영국 명문 웰튼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사 키팅의 파격적인 수업 방식으로 참된 인생을 깨닫게 되는 내용이다. 웰튼 고등학교는 명문 고등학교란 타이틀에 걸맞게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한 입시 위주의 교육을 했다. 웰튼 고등학교에 새로 부임한 키팅 선생은 웰튼 고등학교의 교육이 학교와 사회에 의해 강요된 것임을 자각했고, 첫 수업부터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자유로운 교육을 시도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시는 재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학교 교육 방침과 대비되는 수업을 했고 학생들은 교과서를 찢으면서 기존 교육 방식에서 탈피했다.

수업 중 키팅 선생은 학생들이 벽에 걸린 졸업생의 사진을 보게 했다. 그는 선배들이 학창시절 모두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특별한 삶을 살지 못했다며 학생들로 하여금 현재의 삶이 미래에 원하는 삶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유도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참된 삶이란 타인에 의해 유도된 삶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데 있음을 알려주며 동기부여했다. 학교는 학생들을 선동하고 한 학생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며 키팅 선생을 해고했다. 키팅 선생은 자신의 행동이 학생들을 위한 일이고 헌신하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후회없이 교단에서 물러났다. 이는 그가 리더로서 책임감을 갖고 희생과 헌신을 감내함을 보여준다. 키팅 선생의 제자를 향한 동기부여, 헌신과 희생은 변혁적 리더십의 자질을 보여준다.

헌신과 사랑, 키팅 선생의 변혁적 리더십

#관점의전환 #성장을위한코칭

변혁적 리더십은 팀원들이 자아실현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업무의 형식보다는 본질적인 내용을 알게 해 팀원들이 열망을 갖고 업무에 매진하도록 동기부여 하며 개인의 욕구와 능력의 차이에 기반하여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코치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의 관습에 의문을 제기해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도록 창의적 사고를 유도할 수 있다.

"potent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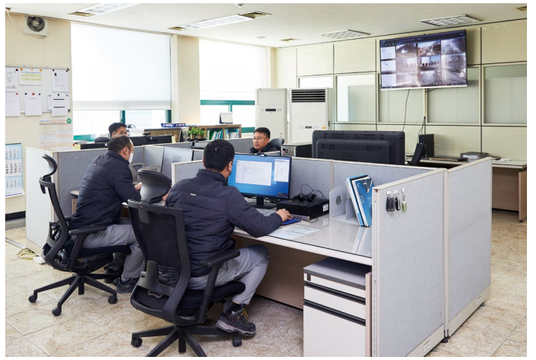
글 송지유
사진 전재천

성신의 글로벌한 미래, 우리가 책임진다

#부강공장 기술연구소 '영양제 젤리' 선물

성신그룹의 기술적 역량은 부강공장 기술연구소에서 나온다. 현재의 과업뿐 아니라 미래의 기술적 준비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쉴 새 없이 달리고 있다. 성신그룹의 글로벌한 내일을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기술연구소 직원들에게 2023년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깜짝 선물이 도착했다.

Global Future



성신그룹의 두뇌, 부강공장 기술연구소

부강공장 기술연구소는 성신양회와 성신레미컨 및 성신CM에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미래에 대비한 기술적인 준비를 하는 부서이다. 변승호 소장을 필두로 연구원 2명과 보조연구원 3명, 서무·회계 담당 사원 등 총 7명이 기술연구소를 이끌고 있다.

2023년 새해가 밝으면서 1월 1일부로 기술연구소 소장에 부임한 변승호 소장은 연구소가 돌아가는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연구소가 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 고민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당장의 현업도 바쁘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부서다 보니 업무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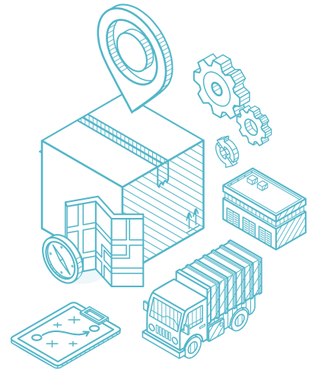
"연초에는 어느 부서나 계획을 다시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느라 바쁘지만, 저희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당장의 실적도 필요하지만 미래를 대비해 항상 한발 앞서 나가 생각하고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죠. 제가 올 1월 부임했기 때문에 본사와 단양공장에 다니면서 앞으로 연구소가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을 잡기 위해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끝내지 못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2018년부터 진행된 EMP차폐 콘크리트 국책과제다. EMP차폐 콘크리트 국책과제란 전자파에 예민한 군시설이나 방송시설, 데이터 센터 같은 곳이 전자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외장재를 포함한 콘크리트를 개발하는 과제다. 당초 2022년 12월에 테스트베드를 타설할 예정이었으나 기온 하강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올 6월 테스트베드 타설 후 실증단계를 거쳐 마무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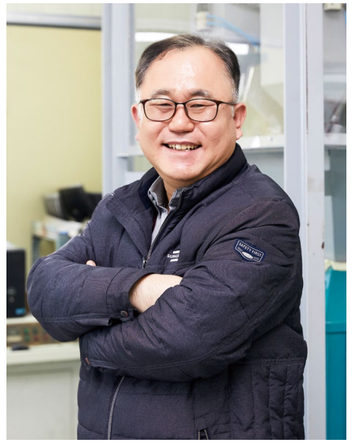
콘크리트는 온도에 따라 건조, 수축 변형, 균열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연구소에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때에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EMP차폐 콘크리트 국책과제 같은 경우 강원도에서 실증을 진행하다 보니 기온이 빨리 낮아져 지연이 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추운 날씨가 도움이 될 때도 있다. 예전에 몽골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도 했는데, 당시에는 추운 날씨가 도움이 됐다.

"과제마다 날씨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공사가 지연이 되어 제때 과제를 못 끝낼 때가 있죠. 저희는 계획한 기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마지막에 업무가 과중되어 무척 힘들어요. 때문에 저는 직원들에게 날씨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 시간에 대한 약속은 꼭 지킬 수 있도록 강조하고 저도 못 지킬 약속은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Sungshin



새로운 인재 영입으로 더 젊어진 기술연구소

2023년을 맞이하는 기술연구소의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다. 새롭게 부임한 기술연구소의 수장, 변 소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함께 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직원들의 믿음과 신뢰가 단단하다.

"소장님은 항상 팀원들을 먼저 생각하세요. 바쁠 때는 저희 건강도 많이 걱정해 주시고, 직원들이 개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연구소도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척 든든합니다." 기술연구소의 연구개발을 맡고 있는 김민성 사원의 의견이다.

직원들의 말처럼 변 소장은 항상 직원들에게 어제보다 오늘, 0.1%라도 더 나은 인재가 되기를 당부한다. 기술연구소의 특성상 기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나아가 계속 바뀌는 트렌드에 대항해 미래지향적인 기술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당장 주어진 연구도 중요하지만 항상 더 멀리, 더 넓게 보면서 글로벌한 인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직원들을 격려하고 이끌어 주고 있는 것이다.

"저희 연구원들은 작년에 입사한 젊은 인재들이에요. 저희 부서만큼 인재가 중요한 부서가 없거든요. 젊은 직원들이 왔기 때문에 함께 잘 합심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배우려는 자세로 열심히 업무에 임하는 젊은 직원들 덕분에 제가 더 든든합니다."

변승호 소장이 그리는 미래의 기술연구소 모습은 더욱 글로벌하다. 탁월한 기술력과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나이키나 애플처럼 성신양회도 글로벌한 기술력을 갖춰 건자재 관련 산업에 있어서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하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다.

"글로벌한 기술력을 갖춘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연구소를 이끌고 싶어요. 이루기 힘든 이상 같지만 이상과 목표는 높게 잡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 기술연구소가 앞장서겠습니다."

힘찬 한 해를 위한 깜짝 선물

한 해의 힘찬 출발을 위해 분주한 기술연구소에 깜짝 선물이 도착했다. '선물을 받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 언박싱을 하기 전부터 직원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다. 과연 어떤 선물이 왔을까, 기대감도 함께 섞여 있다. 한자리에 모인 직원들이 둥그렇게 둘러서서 박스를 뜯어보니 '비타민 젤리'라고 쓰인 파스텔톤의 예쁜 상자가 나타났다. 와~! 상자만 보고도 감탄사가 쏟아진다.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 피로한 몸에 활력을 더해줄 비타민과 눈 건강을 지켜줄 루테인 영양제다. 상큼한 과일 젤리향이 군침 돋게 한다. 예쁜 모양과 맛있는 향기에 이끌려 너도나도 하나씩 입에 넣고 맛보느라 바쁘다.

"제가 첫 직장생활이다 보니 일 때문에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요즘 눈도 피곤했는데 피로 회복할 수 있는 비타민과 눈에 좋은 루테인을 주셔서 정말 좋아요. 제가 초딩 입맛이라 맛없는 건 안 먹는데 맛까지 있어서 잘 먹을 것 같아요." 공부와 일에 열중하느라 항상 피로감을 느낀다는 이상석 사원이 깜짝 선물에 반가운 마음을 전한다.

직원들은 달콤하고 쫀득한 젤리 맛에 반해 영양제라는 걸 잊고 하루치 양을 초과해 자꾸자꾸 입에 넣었다.

"시중에서 파는 젤리랑 똑같아서 저보다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단순히 설탕이 아니라 몸에 좋은 영양소가 들어 있어서 아이들에게 주기도 좋을 것 같네요." 맛있는 걸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했던가. 집에 있는 아이들 생각이 먼저 나는 곽효창 사원이다.

"맛도 좋고 모양도 예뻐서 저절로 손이 가요. 알약 영양제는 잘 챙겨 먹기 힘든데 이건 간식처럼 하나씩 먹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입사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이런 선물까지 받으니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수연 사원의 말에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2023년 힘찬 출발을 응원하는 선물을 받은 기술연구소가 올 한 해 더욱 도약하길 기대한다.

글 권순재(당신의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완벽주의자 리더와 성에 차지 않는 팀원들

수많은 회사가 밀집해 있는 강남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많은 회사원분들을 환자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 보면 같은 회사원분들이라도 직급이나 조직에서 맡는 역할에 따라 서로 다른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팀원에 해당되는 분들은 주로 상사와의 관계, 회사에서의 적응, 업무 배분 문제 등에서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중간 관리자 이상에서 임원급 혹은 경영진들처럼 리더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부하직원과의 소통 문제나 조직 운영에 따른 고충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담을 오신 리더들 중 한 분은 푸념하듯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째서 저는 팀원 복이 이렇게 없을까요?
제 의도의 반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하는 팀원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 팀원들이 의욕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무시당하고 있는 걸까요?"

problem

서로 다른 위치에서 생긴 오해

하나의 회사 안에서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 따라 같은 종류의 고민을 서로 다르게 한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우리의 뇌가 외부 위기 상황에 얼만큼 집중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 위치 감각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직의 위기를 느끼더라도 구성원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과 리더의 지휘를 받는 사람은 서로의 위치가 달라 전혀 다른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는 같은 지시 사항에 대한 다른 해석과 감정을 만들기 때문에 리더는 거의 언제나 자신의 지시 사항이 구성원들에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위치 감각 혹은 공간 감각은 우뇌에서 주로 처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자신은 우뇌의 작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때때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 자기 몸이 이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이 이동하는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팀원만을 만났다던 리더의 한탄을 듣는 동안 저는 사고로 우뇌 두정엽에 큰 손상을 받은 환자분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정말 화가 나서 지하철 직원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밤새 저 모르게 나라가 지하철 역들의 위치를 바꿔버린 거 있죠.
제대로 안내도 해주지 않고 말이예요. 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환자분은 자신의 감각에 차이가 있는지 혹은 역의 위치가 바뀐 것인지를 인지하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필자가 병원을 그만둘 때까지도 그분은 몰래 지하철역을 바꿔버린 누군가에게 분노할 뿐, 자신의 공간 감각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의 입장에서 바뀐 것은 자신이 아니라 세상 전체였을 것입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팀원과의 소통 문제로 상담한 리더는 뇌 손상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식적인 훈련과 집중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 리더는 위치와 입장에 따른 현실 인식의 차이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자신의 기준에 차지 않는 팀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s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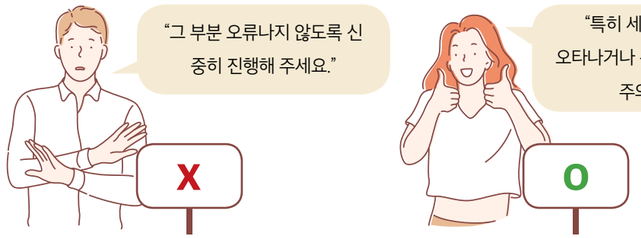
리더와 팀원을 한마음 한 뜻으로

성에 차지 않는 팀원들만 만나게 되는 리더에게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1

지시 사항에서 구체적인 사항보다 맥락을 더 강조했는지 점검하세요.

자기 입장에서만 보이는 것들과 타인의 입장에서 보이는 것들은 전혀 다릅니다. 특히 디테일로 들어갈수록 그 차이는 두드러집니다. 맥락(context)은 수많은 자신의 입장에서 미세 정보들의 합으로 추론된 상황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맥락에만 치중한 지시는 팀원들로 하여금 리더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므로 지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팀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진행해 주세요.



2

고립감에 지지 마세요.

열차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움직이는 것이 자신인지 풍경인지 알지 못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감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오류는 주변 환경의 문제로, 타인의 오류는 개인 특성으로 판단하기 쉽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조직 내에서 일을 하는 동안 우리는 타인에게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 무시당하는 기분, 섭섭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행동의 원인을 오로지 그 사람의 개인적 감정에서 찾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팀원 운이 없어서, 형편없는 리더를 만나서, 혹은 자기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입장의 차이 앞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직 내 위치와 역할 차이로 인한 답답함을 상상속에서 자신에 대한 악의로 채워 스스로를 괴롭히거나 외로워하지 마세요.

3

충고는 팀원의 행위에 대해, 칭찬은 팀원의 성격과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사람들은 성격이나 방식, 성별, 인종 등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비난이나 충고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이는 자신의 본질과 가까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충고를 할 때는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칭찬을 할 때는 사람의 성격과 방식에 대하여 해주세요.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조직 내 역할과 위치에 대하여 존중해 주세요.

POUSE 01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어요
그런데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지구가 아니라
명왕성에 있었더라면
그 별들이 더 반짝였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아요
누군가가 바라본 당신은
충분히 빛나고 있으니까요

꼬맹이여행자
<삶의 쉼표가 필요할 때> 중

겨울은 별을 보기 좋은 계절입니다. 날씨가 차고 건조할수록 대기가 투명해 별이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에는 천억 개의 별을 거느린 천억 개의 은하가 있어 그 수는 셀 수 없이 많지만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1억분의 1만 정도라고 합니다. 아무리 밝은 별들이 우리 은하 속에 가득해도 수천 광년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부는 볼 수 없습니다. 별처럼 우리도 단지 멀리 있어서 보이지 않을 뿐 충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자료 김동현 **글** 편집실

성신의 안전과 보건은 우리에게!

여러 산업 현장에서 재난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이 생겼다.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아직 안전에 대한 대비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산업현장에서 총체적인 안전 관리가 중요해진 시기에 성신 사우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이 존중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전사안전보건팀을 소개한다.

총괄안전본부

전사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지켜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안전보건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으로 무재해 목표

- 전사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 분기별 현장 안전점검
- 안전보건기준 규칙에 따른 설비 적합성 검토
- 전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 타 부서 안전위험 요소 관리 및 제거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전사안전보건팀이 신설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 예방을 위해 경영 책임자에게 15개 의무*를 부과하는데 전사안전보건팀은 이 의무들을 지킬 수 있도록 경영 책임자를 보좌한다. 또한 의무 이행을 위해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단양공장 및 분공장 전반에 대해 분기별로 서류 및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조치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운영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에 관한 의무 9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관한 의무 4개,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총 15개

"현장에서 가장 빈번한 3대 사고를 예방해요"

산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 '끼임', '넘어짐'은 3대 다발재해 또는 재래식 재해라고 불린다. 전사안전보건팀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두 가지에 집중한다.

첫째, 현장 안전점검을 할 때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비가 적합한지 중점적으로 체크한다. 부적합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를 먼저 한 후에 다시 작업을 시작한다. 개인의 안전이 아닌, 옆에 있는 동료의 안전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홍보를 진행해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을 환기한다.

둘째, 전공정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철저히 관리한다. 위험성평가란 현장의 잠재 위험 요소를 파악해 개선 계획을 도출하고 실시하는 과정이다. 위험요소를 미리 관리하여 사상자나 부상자가 생기지 않게 재해를 예방한다.

전사안전보건팀의 목표는 무재해 사업장으로 전사안전보건팀과 사내 모든 부서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구성원까지 안전보건 관리를 최우선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이뤄질 수 있다. 무재해 사업장을 위해서 모든 부서 구성원과 협업은 필수적이다. 특히 사업장별 유해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현장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팀과 교류가 많이 이뤄진다. 안전보건 관리 업무는 사내의 위험요소를 개선하고 모두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만 아닌 우리 모두 함께 지키는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한다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우리팀에게는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전사안전보건팀은 사우들이 안전을 최우선이라 여기며 안전 캠페인을 실천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회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체계를 운영하면서 무재해를 달성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사우들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성을 환기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근무하는 것을 보면 뿌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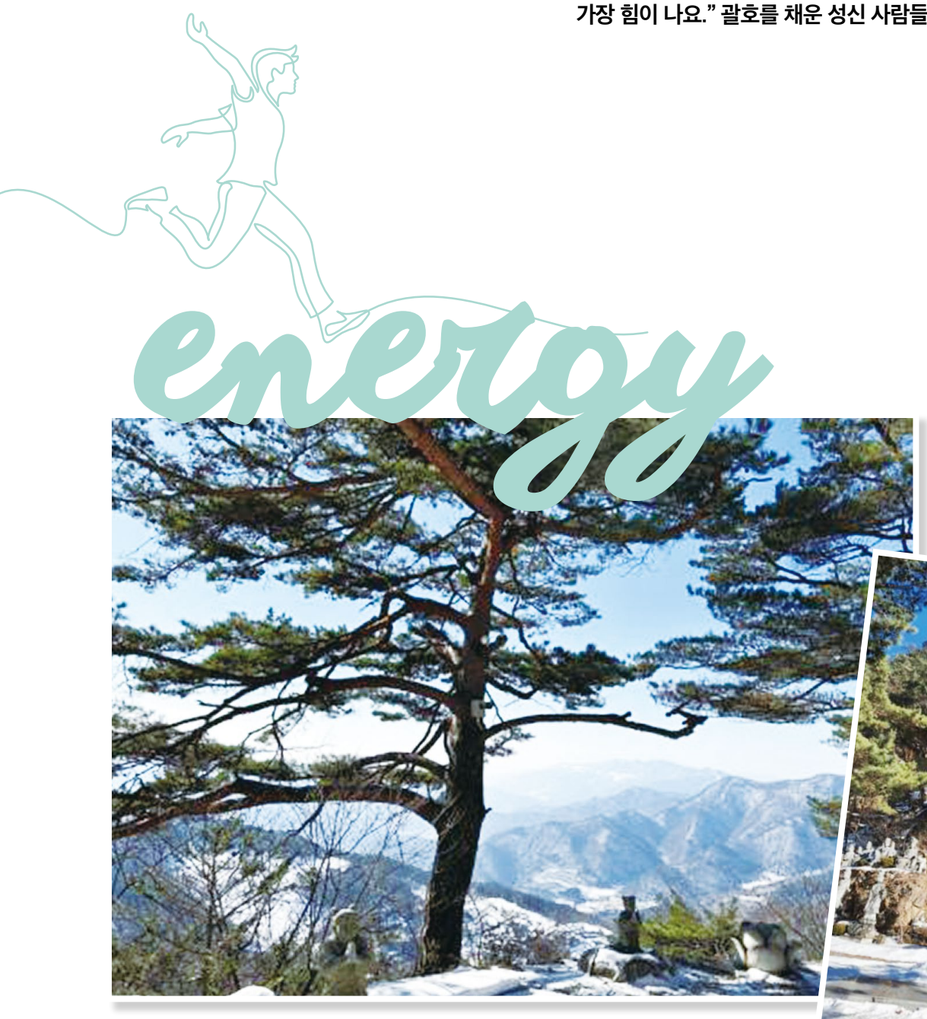
다만 특수한 성격으로 전사안전보건팀 나름의 고충도 있다. 이 일은 사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목표를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전사안전보건팀은 업무 보람을 느낄 기회가 조금 적다고 한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갑자기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되는 것 같아 힘이 들어요."

회사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다 보니 이 팀은 '안전 염려증'과 건강 염려증'을 직업병으로 달고 있다. "공장에서 전화만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재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가, 누군가 다친 것은 아닌가 걱정부터 앞서요. 또한 건강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 한다는 생각에 모두 꾸준히 운동을 하고 영양제를 챙겨 먹어요. 최근 인사이동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점심 먹고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산책을 한답니다."

정리 편집실

"~덕분에 힘이 나요" 성신 사람들의 에너지원

새해 바쁜 업무로 방전된 배터리처럼 무기력하고 지쳐 있나요? 우리는 힘들 때 무언가로부터 위로를 받곤 합니다. 그 원천은 사람마다 다른데, 든든한 가족일수도, 재미난 취미일수도, 힐링 스팟일수도 있습니다. "저는 ( )덕에 살아요." "저는 ( )을 할 때 가장 힘이 나요." 괄호를 채운 성신 사람들의 에너지원을 소개합니다.



고즈넉 사찰에서 힐링

단양공장 생산1팀 김윤태 사우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만봉사입니다. 아내와 조용하고 고즈넉한 사찰 여행으로 평온한 마음 챙기기를 했어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강아지

성신레미컨 구리공장 이건호 사우

형수님의 출산 이후 1년간 맡아주기로 해서 시작한 인연이 이제는 우리 가족의 구성원으로 되었어요~ 낯선 사람에겐 사나운 아이지만 저에겐 세상 착한 강아지랍니다.

애교 만점 우리집 막둥이

단양공장 생산2팀 손경수 사우

우리집 막둥이가 벌써 초딩이 되네요. 눈치가 빠르고 표현을 잘해줘서 저에게 항상 힘이 됩니다.

캠핑 핫플레이스 헌터 부부

성신레미컨 경영기획팀 정윤환 사우

요즘 저의 최애이자 에너지원은 바로 캠핑입니다. 퇴근 후 머릿속은 온통 캠핑뿐이죠. 평소 가고 싶었던 인기 캠핑장 예약에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가서 먹을 음식 장보기, 주변 관광지 알아보기 등 준비하다 보면 주말만 기다려져요. 저는 말 그대로 '캠핑중독'이네요. 맛있는 음식과 소품을 예쁘게 세팅하고 사진을 남기는 아내 덕분에 이번 공모전도 자신있게 참여해 봅니다.

까르르! 할로윈 즐기는 소녀들

성신레미컨 구리공장 이동현 사우

한창 재미난 장난을 치는 두 딸이 제 고단한 삶의 활력소입니다.

기묘년은 토끼 같은 웃음으로 충전!

성신레미컨 구리공장 이해원 사우

우리 귀여운 아윤♡지윤의 해맑은 웃음은

2023년에도 무한 에너지를 충전해 줍니다. 화이팅!

아들은 지식 충전
아빠는 활력 충전

환경에너지사업본부 판매사업팀 신형호 사우

항상 책을 즐겨 읽는 초등학교 3학년 아들입니다. 최근 독감도 씩씩하게 잘 이겨냈지요. 아들이지만 배울 점도 많고 항상 보고 싶은 최고의 에너지원입니다.

아빠의 박카스는 Jin

경영지원팀 나현일 사우

항상 밝은 에너지로 아빠만 바라봐 주는 Jin이

있어 올 한해 힘을 얻어 출발해 봅니다.

산에서 받는 正氣

성신CM 김기호 사우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산은 저에게 에너지원입니다

꼬리치며 반갑다고 멍멍멍!

단양공장 이진호 사우

교대근무로 밤 늦게 오는 절 기다리는 건 꼬리 흔들며 반겨주는 강아지뿐이네요. 강아지와 깊은 대화를 주고받지는 못해도 제 말은 제일 잘 알아들어요! 새벽에 항상 반가워해줘서 고마워.

Smile

희노애락을 나눈 동기들

경영지원본부 자금팀 강대민 사우

★1박2일 부산여행★ 나의 에너지원은 2022 성신 동기들! 앞으로 힘들 때도 많겠지만 시멘트처럼 똘똘 뭉쳐서 서로 힘이 되자! (자금팀 강대민, 회계팀 곽덕진, 기술연구소 이상석, 기계팀 강경호, 환경팀 권경민)

새해 맞이

건강을 구독해 봤습니다!

구독 서비스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 결제돼 매달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뉴스, OTT부터 면도기, 수건까지 다양한 구독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 건강을 신경 쓰는 사우들이 못생긴 채소, 도시락, 월간 영양제 구독을 체험해 봤습니다. 사우들의 건강 먹거리 구독 후기를 살펴봅시다.

신선한 채소 박스가 내 집 앞에?
채소 활용 레시피는 덤+

Uglyus

못생겨도 괜찮아요 맛있으니까! 어글리 채소 구독

크기가 제각각이거나 살충제 없이 해충을 견뎌 무해한 상처가 남은 채소를 못생긴 채소라고 해요. 맛과 영양은 그대로인데 팔리지 않아 헐값에 처분되죠. 못생긴 채소의 제 가치를 찾아준 채소 박스를 구독해 무농약 · 유기농 채소를 30% 저렴한 가격으로 문 앞에서 받아요.

추천 대상

- 대용량 채소가 부담스러운 소식가
- 부족한 시간과 무거운 장바구니로 고민인 살림꾼
- 친환경 농작물을 소비하는 그린 컨슈머

경영지원본부 인사총무팀 성민경 사우

처음 들어본 '못생긴 채소'가 궁금해서 신청했어요! 빨간색 토마토부터 보라색 고구마까지 일곱색의 채소들이 문 앞에 배달됐지요. 평일에 받아서 베란다에 보관했다가 주말에 꺼냈는데 너무 신선해서 놀랐어요. 브로콜리, 고구마, 표고버섯과 집에 있는 당근을 활용해서 '매콤 채소 조림'을 요리하고 시금치, 토마토를 넣어서 '오일 파스타'를 만들었어요. 매콤 채소 조림은 구독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레시피인데요. 요리에 미숙한 제가 해낸 걸 보니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빠르게 집 앞에서 유기농 채소를 받고 싶은 분, 자주 요리하시는 분, 매번 장 보러 가는 게 힘드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비선호 채소 5가지를 선택해서 채소 박스 구독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채소로 건강을 챙겨보세요~

간편한데 맛있어!
우유부단러를 위한 도시락

We Eat Delight

하루 한끼는 간편하고 건강하게! 도시락 구독

자취하다 보면 영양보다는 간편함을 추구할 때가 있어요. 혼자 먹는데 대충 때우자는 생각으로 건강을 소홀히 하게 되죠. 합리적인 가격에 건강하고 다양한 구성의 도시락을 집 앞에서 받으세요. 원하는 날에만 받도록 지정할 수 있고 배송 일정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 무엇을 먹을지 오래 고민하는 우유부단러
- ✓ 배달 음식처럼 간편하지만 균형 잡힌 영양을 원하는 건강족
- ✓ 혼자서도 다양한 음식을 즐기고 싶은 미식가

경영지원본부 자금팀 유은지 사우

자취하면서 매번 끼니를 챙기기 귀찮아서 대충 먹는 날이 많았어요. 건강을 챙기고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도시락 구독 서비스가 궁금해서 신청했습니다. 출근 전 배송 받아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퇴근 후 집에서 저녁으로 먹었어요. 하루는 쉬림프 페퍼로니 로제 스파게티와 크리스피 핫도그, 사이다를 받았어요. 사실 간편식이라 맛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도시락 구독 서비스는 매일 어떤 메뉴를 먹을지 고민할 필요 없이 일정대로 배송 받아서 편했어요. 원하는 메뉴가 있는 날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뭐 먹을지 오래 고민하는 분들, 다양한 음식을 간편하게 맛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성신레미컨 구리영업소 허성원 사우

30대가 되면서 건강 관리에 신경이 쓰여 아침마다 영양제를 먹으려고 해요. 종류가 여러 가지라 매일 챙기기 번거롭고 어떤 제품을 사야 하는지도 고민됐어요. 꼭 필요한 영양제를 매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제가 체험한 제품은 24가지 영양성분과 기능성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데일리 영양제였어요. 멀티비타민&미네랄 1알, 루테인&오메가3 2알, 프로바이오틱스 1알, 총 4알로 구성됐지요. 평소에 챙겨 먹던 영양제는 하나씩 통을 열어가며 꺼내 먹어야 해서 번거로웠지만 이 제품은 하루분씩 소포장돼서 출근길 차 안에서 간편하게 챙겼습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자기 몸 상태에 맞는 영양제를 추천받을 수 있으니 영양제 입문하시는 분들께 강(력)추(천)합니다. 영양제 구독하고 생활의 질을 높여보세요.

건강 관리는 미리~ 미리~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영양제

Hear:th

1일 1비타민으로 헬시 플레저 해요~ 월간 영양 구독

여러분의 건강 고민은 무엇인가요? 눈, 간, 위 등 나를 위한 맞춤 영양 설계로 건강 기능 식품을 큐레이션 받을 수 있어요. 영양제는 다 먹으면 새로 구매하는 걸 자주 잊게 되는데요. 1회 구독에 한 달분이 배송되고 정기 구독하면 영양제가 다 떨어져 갈 때쯤 자동으로 배송돼요. 꼭 필요한 성분만 담아 균형 잡힌 영양으로 건강한 삶을 추구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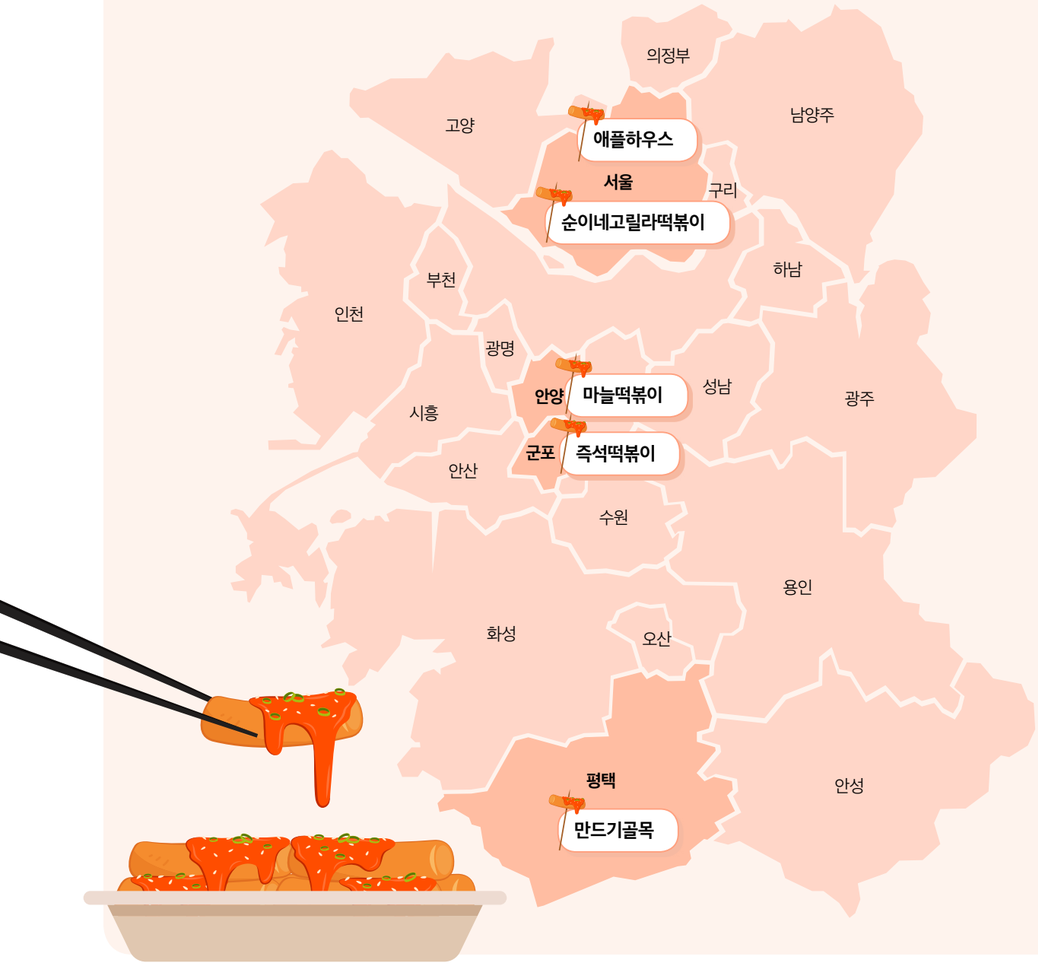
추천 대상

- ✓ 무슨 영양제를 먹어야 할지 고민하는 입문자
- ✓ 바쁜 일정에 간편한 영양제를 찾는 현대인
- ✓ 하루하루 녹슨 몸을 실감하는 저질체력人

떡볶이에 진심인 성신 사람들의 <떡동여지도>

국민 소울푸드 떡볶이! 사우들의 인생 맛집을 추천받았습니다. 맵고 단 양념이 스며든 쫄깃한 떡에 진심 어린 후기와 음식에 얽힌 추억을 담아 전합니다. 사우들이 PICK한 전국 떡볶이 맛집을 찾아봅시다.

Seoul & Gyeonggi



순이네고릴라떡볶이

#필수추가_달콤바삭한 "식빵튀김"
떡볶이 국물에 찍어먹어도 꿀맛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15-2

성신레미컨 구리공장 이건호 사우

단짠 소스와 말랑한 밀떡, 어묵이 들어간 국물 떡볶이예요. 김말이, 고구마, 야채는 물론 계란, 맛살, 소시지, 식빵까지 튀김 종류도 다양해요.

만드기골목

#후식필수_터져야 정상인 "만드기호떡"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 129

성신CM 기획관리팀 박지우 사우

안중시장 안에 위치했으며 매콤하고 묘한 맛에 계속 생각나는 떡볶이예요. 겨울에는 떡볶이 먹은 후 옆집에서 호떡 후식도 맛봐요~

마늘떡볶이

#간식추천_간단하게
테이크아웃할 수 있는 "컵떡볶이"
#2인추천_순대+내장+떡볶이
섞은 "순대떡볶이"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117
맵시프라자

성신레미컨 경영기획팀 정윤환 사우

30년간 자리를 지킨 떡볶이 맛집으로 안양 시민들의 학창시절 추억이 담겼어요. 마늘의 매운맛은 날아가고 단맛이 남은 떡볶이를 맛볼 수 있죠. 요즘 보기 힘든 컵 떡볶이도 있어요.

즉석떡볶이

#웨이팅필수_웨이팅 피하고 싶
다면 "포장" 추천!

경기 군포시 오금로 18 주공3단지 상가

단양공장 사성진 사우

강한 조미료와 설탕이 들어간 옛날식 즉석 떡볶이예요. 기본 떡볶이에는 쫄면 사리가 있고 쫄면을 안 먹으면 라볶이를 추천해요. 다 먹고 나면 밥볶음(김가루+치즈)으로 마무리하세요.

애플하우스

#필수추가_양념에 슥 베인 "쫄면사리"
#필수추가_튀긴 만두에 떡꼬치 소스를 바른
"무침 만두"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27다길 29 2층

성신레미컨 수주영업팀 박성수 사우

고추장+춘장 소스에 떡, 양배추, 어묵을 넣고 바글바글 끓여 먹는 즉석 떡볶이예요. 쫄면 사리와 무침 만두가 잘 어울리니 꼭 추가하세요.

Gangwon-do

게렌데푸드코트 용평리조트점

#떡볶이만 맛집이 아니라 뷰도 맛집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715

감사팀 전미진 사우

평창 발왕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먹은 푸드코트 떡볶이예요. 기가 막힌 뷰를 보며 달달한 떡볶이를 먹으니 최고네요.

Chungcheongbuk-do

제천빨간오뎅

#필수추가_정겨운 동네 분식점의 기본맛 "빨간오뎅"

충북 제천시 의병대로18길 2

빨간 어묵

단양공장 생산2팀 손경수 사우

제천하면 빨간 어묵이 명물로 꼽히는데요. 제천 중앙시장에 위치한 이집은 맵고 달달한 떡볶이도 맛나요. 새벽 2시까지 영업해서 간단한 야식으로 좋아요.

Gyeongsangbuk-do

영주랜떡

#별칭_랜드로바 매장 앞에 위치해서 "랜드로바떡볶이(aka. 랜떡)"
#달달하고 아삭한 양배추와 방앗간에서 갓 뽑은 가래떡이 특징

경북 영주시 중앙로83번길 26-2 영주랜떡

성신레미컨 경영기획팀 정윤환 사우

지인 추천으로 맛본 떡볶이예요. 굵은 가래떡을 사용해 정말 쫀득하고 입에 꽉 차서 씹는 맛이 일품이죠. 빨간 양념이지만 담백하고 정감 있는 맛이라 누구나 좋아할 거예요.

POUSE 02

창문을 넘어
나에게 쏟아지듯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

따뜻한 오후의 햇살이 나에게 닿고
내 시선은 햇살에게로 옮겨간다

바쁘게 지나가는 나를
오후의 햇살이 붙잡는다

나른한 햇살에
잠시 쉬었다 가라고

안소연
<시간의 언덕을 넘어> 중

햇살은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눈부시게 밝은 빛 한줄기가 창 안으로 들어오면 하얗게 시렸던 마음은 따듯하게 녹아내립니다. 피부에 닿은 한줌의 햇살은 무척 부드럽습니다. 차가운 몸을 햇볕 속에 풍덩 빠뜨려봅시다. 그곳에 앉아 태양이 보내는 따사로움을 만끽합니다. 겨울 한낮의 호사로운 시간입니다.

글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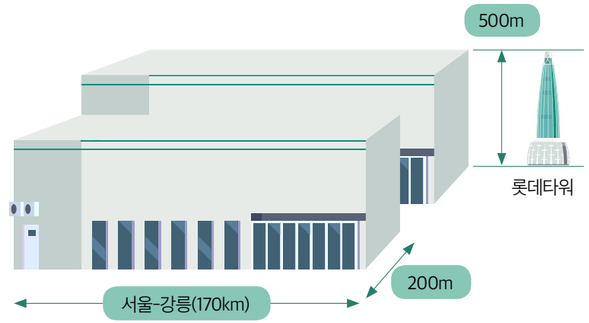
사우디의 상상은 현실이 될까 '네옴시티'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의 100%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친환경 스마트 도시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국내 기업들은 건설부터 통신, IT, 에너지 분야까지 사우디에서 일감을 따낼 기대감으로 차 있다. 네옴시티를 통해 우리 미래의 생활은 어떤 모습일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라인 출처: 네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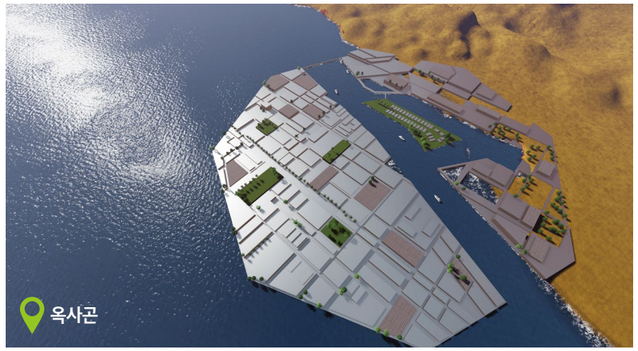
네옴시티는 석유로만 수익을 내던 사우디가 첨단기술을 통해 사업군을 관광과 제조업까지 넓히려는 도전이다. 이 계획은 100% 신재생 에너지로 운영되는 친환경 주거 · 상업 도시 '더라인(The Line)', 바다 위 최첨단 산업 도시 '옥사곤(Oxagon)', 사막 위 스키장을 갖춘 친환경 관광 도시 '트로제나(Trojena)', 럭셔리 섬 여행지 '신달라(Sindalah)'로 구성된다.

SF영화 속 도시가 사우디에? 더라인!



네옴시티의 프로젝트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더라인'은 폭 200m, 높이 500m, 길이 170km로 선처럼 긴 건물이 마주보는 형태의 직선 도시다. 사우디 북서부 타북 주에서 시작해 사우디 · 이집트 · 요르단 국경이 모이는 홍해 아카바만까지 이어진다. 더라인은 보행자 구역, 공공 구역, 공원 등을 층층이 쌓아 올려 약 900만 명이 병원, 갤러리, 경기장 등 여러 지점에 도달하는데 10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초고속 열차를 타면 20분만에 도시 끝에서 끝으로 이동할 수 있다. 총 170km 중 24km마다 정차하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이 가능하다. 단거리를 이동할 땐 특정층에 마련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바다 위 떠있는 공장? 옥사곤!



옥사곤은 바다 위 떠있는 팔각형 모양의 산업 단지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부유식 구조물로 경제의 중심이 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옥사곤은 사물인터넷(IoT), 인간-기계 융합, 인공지능과 예측지능, 로봇공학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산업 중심지를 재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 세계 무역의 약 13%가 통과하는 수에즈 운하 인접 홍해에 위치하기 때문에 항만과 공항을 통합해 기술적으로 진보된 물류 허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동계 스포츠를 사우디 사막에서? 트로제나!

트로제나는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 개최 지역으로 선정됐다. 해발 1,500m~2,600m에 달하는 산맥에 위치해 사우디의 다른 지역보다 평균 기온이 10도 낮고 겨울엔 영하로 떨어져서 사막에서도 동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트로제나는 호텔, 리조트부터 인공호수까지 함께 조성해 다채로운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2026년 완공 예정이다.

사우디의 럭셔리 관광 섬? 신달라!

마지막 프로젝트인 신달라는 네옴시티 내의 첫 번째 호화로운 섬 여행지이자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광 전략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다. 면적은 약 84만㎡에 달하며 자연 경관을 살리는 독특한 디자인에 따라 개발될 예정이다. 홍해로 가는 주요 관문으로 2024년 초부터 손님들을 맞이하여 최고급 시설과 맞춤형 해상 체험 등 특별한 혜택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준비될 것이다.

네옴시티,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여주는 청사진

사우디는 사막에 태양광 패널을, 해안선에 풍력발전기를 다수 설치해 탄소 배출 없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로 가동되는 인공달이 도시를 비추고 일교차가 큰 사막의 기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수직 농장과 온실을 통해 식량을 조달하며 재생에너지를 가동해 탄소배출이 없는 담수화 공장에서 물을 공급받아 자급자족을 실천하는 방식이다. 담수화 공장에서 나온 염수 찌꺼기는 산업용 원료로 재사용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예정이다.

#1 자연의 95% 보존하는 도시 건설

네옴시티는 육지의 5%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연에 할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네옴시티가 지어질 지역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가지고 있지만 지하수의 남용으로 인해 사막화 됐다. 지하수의 자연적인 흐름을 복원함으로써 2만5천㎢ 이상의 건강한 서식지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사람들이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냥을 금지하고 풀과 나무가 자유롭게 자랄 수 있는 공원 안에 도시로 가꿔질 계획이다.

#2 1억 그루의 나무가 심어진 도시

2030년까지 1억 그루의 나무, 관목, 풀들이 조성될 예정이다. 지역 환경에 적응된 토종 식물종만 심어서 영양분을 토양으로 되돌리고 물 사용을 최소화해 수분을 가둘 것이다. 연속적인 식재 방식을 통해 식물의 밀도를 높이고 그늘을 넓혀서 줄어든 열의 양으로 식물들이 바다에서 더 많은 수분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로써 식물이 더 쉽게 생존하고 새로운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질 것이다.

#3 문화&무역의 핫플레이스

네옴시티는 전 세계 무역의 13%가 통과하는 수에즈 운하와 인접한 홍해에 위치한다. 지리적 장점과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 교역의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또한 3대 아브라함 종교의 갈림길에 위치해 종교 순례를 위한 매우 중요한 장소다. 문화와 인간, 자연 사이에 훌륭한 상호작용이 이뤄져 앞으로 역사의 한 주축을 쌓을 것으로 전망된다.

글 편집실

추울 때 더 위험한 뇌졸중&심근경색 신호 미리 알기

찬 바람이 부는 겨울철에 혈관은 수축하고 혈압은 상승해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진다. 두 질환은 혈관 속에 서서히 쌓인 노폐물로 피가 원활하게 돌지 못해서 사망하는데,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침묵의 저승사자'라고도 불린다. 국내 3대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뇌졸중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근경색은 전조증상만 발견하면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침묵의 저승사자 신호를 살펴보고 예방법을 실천하자.

골든 타임 3시간

뇌졸중은 시간 싸움

뇌졸중이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져서(뇌출혈) 사망하거나 뇌 손상이 오는 질환이다.
뇌졸중 치료 후 3분의 1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3분의 1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나머지 3분의 1은 움직임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후유증이 심하다. 치료가 한 시간 늦으면 수명이 3.6년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을 만큼 뇌졸중은 시간 싸움이다. 뇌졸중의 고위험군인 고령,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가족력에 속한다면 오른쪽 뇌졸중 자가진단 테스트를 해보자. 이 가운데 한 가지 증상이라도 의심되면 즉시 응급실에 가야 한다.

뇌졸중 자가진단법 FAST

Face 얼굴 마비

거울을 보고 이- 하고 웃는다.
→ 한쪽 입꼬리가 축 처진다면?

* 얼굴은 조금씩 다 비대칭이지만, 뇌졸중이 생기면 비대칭이 더 극명해진다.

위험

Arm 팔 마비

양팔을 올리고 손바닥이 하늘 위로 향하게 한다. 그대로 눈을 감고 숫자 10을 센 후 눈을 뜬다.
→ 한쪽 팔이 떨어지거나 접히거나 돌아간다면?

* 양팔 다 힘 빠지면? 뇌졸중이 중앙인 경우에 그렇지만 드물고, 보통은 기력이 없는 상태

의심

Speech 어눌한 발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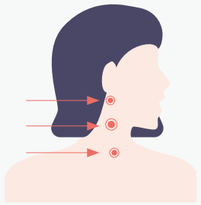
"맘마", "랄라", "가가"를 발음해 본다.
→ 발음이 어눌하거나 어렵다면?

경고

Time to call 119

고위험군 대상자는 경미하게 한 가지 증상이라도 의심되면 즉시 119에 연락하세요

뇌졸중 예방 마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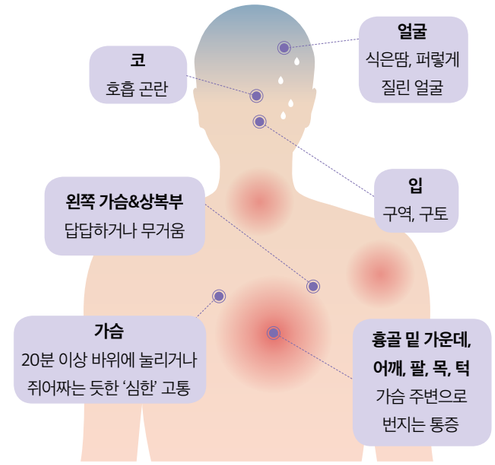
신경과 림프절이 지나가는 목 근육인 '목빗근'이 굳어 신경을 누르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목을 세 부위로 나눠 귀밑, 중간 목 부위, 쇄골 윗부분을 차례로 10초씩 마사지한다. 심한 강도로 누를 경우 경동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주의한다.

골든 타임 2시간

심근경색의 적색 신호

심근경색이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혈전(피떡)에 의해 갑자기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어 사망하는 질환이다.
심근경색은 얼마나 빨리 대처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다. 심근경색 사망률은 약 30% 정도이며, 심근경색 환자의 3분의 1은 병원 도착하기 전 사망하고, 도착한 환자 중에서도 5~10%는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근경색을 한 시간 이내에 치료하면 사망률을 50%이상 낮출 수 있지만, 치료가 늦어지면 사망률은 한 시간에 0.5~1.0%씩 오른다. 특히 고위험군 대상자*가 흉통, 식은땀, 구토 등 초기증상이 15분 이상 지속될 경우 즉시 응급실에 갈 것을 권한다. 심근경색의 대표적인 증상을 살펴보자.

* 고위험군 대상자: 60세 이상, 심근경색 가족력, 비만, 흡연, 당뇨, 콜레스테롤 질환자



TIP **[심장질환 vs 근육통] 가슴 통증과 자주 헷갈리는 증상, 근육통**

가슴이 아픈데 심장 질환인지 가슴 근육이 뭉치거나 놀라서 생긴 통증인지 헷갈린 경우가 있다. 손가락 하나로 구분하는 방법을 따라해 보자.

"아픈 부위를 손가락으로 짚어보세요."

심장질환
"어딘가 답답한데.." 전반적인 가슴 부위에 통증을 느껴 알지 못한다.

근육통
"여기요. 여기" 아픈 데를 정확히 짚을 수 있다.

"어떨 때 많이 아프세요?"

심장질환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요.

근육통
자세를 바꿀 때요.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혈관 디톡스 밥상

POINT

✓ 육류 < 생선

✓ 콜레스테롤이 높은 밀가루 음식, 튀김류는 일주일에 3회 미만으로

✓ 하루에 3가지 색의 채소와 2가지 색의 과일

글 편집실

교양있고 사려 깊은

‘요즘 사람’은 그런 말 안 쓴대요~
언어 감수성을 높여 봐요

일상 언어는 계속해서 변화한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정서가 반영되어 무럭무럭 자라나고 변신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명을 다하기도 하고, 흥미로운 맥락을 담아내며 새롭게 생겨나기도 한다. 우리의 언어생활 속, 감수성과 배려가 미처 닿지 못한 말들을 살펴볼까?

마블 영화에까지 진출한 O린이?!

지난해 7월 개봉한 마블 스튜디오의 영화 <토르 : 러브 앤 썬더>의 자막을 두고 일부 관람객이 불만을 제기했다. 새로운 능력을 가지게 된 캐릭터를 가리켜 ‘토린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이다. ‘슈퍼 파워’를 갖게 되어 흥분감을 감추지 못하는 ‘초보 히어로’의 모습을 ‘O린이’라 호명한 데엔 비판의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최근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일련의 표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동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기 때문이다.

>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 아동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
>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 공공기관 공문서 등에 ‘O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홍보·교육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이런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모르고 쓰던 말, 언어 감수성으로 필터링해요

따뜻한 말로 첨삭해봐요.doc

주린이라 잘 몰라~ → 주식초보

가사노동에서 해방시켜줄 **가전 3대 이모님!** → 가전3신

나 **결정장애**야. → 우유부단러(-er)

그 드라마? **발암** 서사가 따로 없다니까. → 분노를 유발하는

정말 너무하네~ **틀딱들** 말은 그냥 한 귀로 흘려 들어. → 그런 사람들

O린이는 어린이를 불완전하고 미숙한 존재로 전제한 말

3대 이모는 가사노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을 확대 재생산. 이모님, 할머님으로 불리는 노동자는 점차 ‘가사관리사’로 바뀌는 중이다

장애를 ‘부족함’ 또는 ‘열등함’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말

특정 질병 환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

노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

첨삭하기 전 표현들을 봤을 때 누군가는 심장이 뛰며 불편해졌을 수도 있다. 누군가는 이 말들 중 한두 가지는 자주 사용했을지도 모른다. 아무런 비하 의도 없이, 다들 쓰니까, 딱 맞는 비유라고 생각해서 사용했지만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에 고쳐 써야 한다. 습관적으로 사용했던 표현의 이면엔 미처 생각지 못한 차별과 편견, 위계의 시선이 숨어있기도 하다. **언어 감수성***에 대해 탐구해온 고려대 신지영 교수는 ‘말이든 글이든 언어는 상대를 전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대의 감수성에서 어떻게 들리고 읽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한다.

*언어에 대한 민감성. 우리의 생각이 지금 쓰는 언어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살필 수 있다.

꾸준하게 제기되어온 언어 논란

하지만 국어 사전엔 등재되어 있다

이미 우리가 쓰지 않는 말들 LIST

~~양키~~
~~고쟁이~~
~~처녀작~~
~~미망인~~
~~여류작가~~
~~학부형~~
~~살색~~
~~귀머거리~~
~~앉은뱅이~~
~~식모~~

국어학자 이정복은 '차별 표현', '차별 언어'의 개념을 '성, 인종, 장애, 지역, 직업, 종교, 기타'의 7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연구한 바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남성형을 기본으로 하고, 여성형을 파생형으로 두거나, 민족의 순수성을 강조하며 외국인을 비하하고 배제하는 단어들이다. 장애를 부정적으로 이르고, 직업과 지역을 낮잡아 표현해 좀처럼 쓰이지 않는 말이 됐다. 이것만으로도 '언어의 높이뛰기'를 위한 허들은 조금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아! 저 사람은 김여사인가? 운전 왜 저렇게 해?

설명충, 잔소충은 정말 싫어

잼민이들 진짜 시끄럽네

요 아이는 이번 시즌에 자주 꺼내 입을 수 있으실 거예요

설카고자안데 이 정도면 잘 나왔지?

고정관념이 스민 과거의 언어에게 이별을 고할 즈음, 혐오가 만들어낸 오늘의 언어도 바짝 다가와 있다. 종전보다 큰 파급력을 갖춘 방송, 소셜 미디어의 전달성과 개방성은 이러한 말들을 바이러스만큼이나 빠르게 확산시켰다. 재치 있는 유행어가 차별이 어린 표현들과 마구잡이로 섞여 이제 미디어 밖, 일상어로도 파급되었다.

유행을 선도하는 Z세대도 이런 말들엔 예민해

누구보다 유행에 민감하고, 신조어 등 새로운 언어를 통해 소통하는 것을 즐기는 Z세대. 센스 있는 신조어는 활발히 받아들이고 확산시키지만, 나름의 도덕률에 어긋난 표현, 리스크가 있는 말들에는 예민하게 반응한다.

화이트닝, 갈퇴금, 장애인 차별적 표현(반팔 티셔츠, 외팔 자전거, 벙어리장갑), 달모/대머리 밈, 마약〇〇 등

- 캐릿, Z세대가 뽑은 '이제는 쓰면 안되는 단어' 중에서-

누구나 메시지의 '발신자'가 되는 세상,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거나, 약자를 차별하거나, 외모를 희화화하는 표현 등에 대해 찌릿한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젊은 소비자 또는 구독자를 우리는 의식할 필요가 있다. 개인 차원은 물론, 마케팅이나 홍보 현업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큰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 각종 언어 파괴는 되면서 얘들은 왜 안돼?

신조어를 보는 관점은 매우 다양하다. 본래 목적인 의사소통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이는 명백히 '언어파괴'다. 이화여대 영문과 최혜원 교수는 언어는 신조어를 좀 쓴다고 변질되거나 파괴되는 유약한 존재가 아니라며 오히려 아무 단어도 생겨나지 않고 정체되는 상태를 우려한다. 반면 사전에 나온 표준어들을 기반으로 바른 언어를 쓰더라도 그 의미에 차별을 담고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진지해도, 안 웃겨도 돼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해요."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다. 내 마음을 정확하고도 재밌게 말하고 싶은 욕구보다 누군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 재치와 유머는 그 다음으로 두어도 괜찮다.

언제든 쓸 수 있게 소화기를 점검해요

춥고 건조한 겨울에는 다른 계절보다 화기 사용이 잦은 만큼 화재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예기치 못한 불길에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화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을 알아봅시다.

제조기간 10년 이내인 것만!

소화기의 유효기간은 10년이기 때문에 화재 시 노후된 소화기를 사용하면 부식으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조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소화기를 준비하세요.

KC인증마크 표시된 것만!

소화기는 화재 초기 진압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검인증이 필수입니다. 검인증을 받지 않은 소화기는 생산 · 유통 · 판매가 금지됩니다.

지시압력계가 녹색인 것만!

소화기의 지시압력계 바늘이 녹색의 범위 안에 있어야 적합합니다. 바늘이 노란색 범위에 있으면(0에 가까우면) 소화기 내 부족한 압력 때문에 소화약제를 정상적으로 방출할 수 없습니다.

서늘하고 찾기 쉬운 곳에!

소화기에 충전된 이산화탄소 압력은 온도에 따라 변하므로 직사광선이나 고온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비, 눈, 이슬, 약품 등에 의해 부식되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통행에 방해되지 않으면서 눈에 잘 띄는 곳에 소화기를 보관하세요.

화재 상황에 따른 소화기 종류

A 일반화재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

분말 소화기, 할로겐 소화기*, 액체 소화기

B 유류화재

휘발유, 오일, 페인트 등의 휘발성 액체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

↓

분말 소화기, 할로겐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C 전기화재

전기가 흐르고 있는 전자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

1차원적으로 전원 차단 후 분말 소화기, 할로겐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로겐 소화기는 밀폐공간에서 사용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단양공장

- 종류: ABC 분말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K급 소화기(식당)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 위치: 사무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현장은 화재 취약 구역에 소화기를 비치했습니다.

SUNGSHIN **NEWS**

❶

2022년 하반기 임원전략회의

2022년 하반기 임원전략회의가 회장 외 20명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 11일 본사 교육장에서 개최되었다. '2023년 사업계획 수립'을 주제로 최근 더욱 어려워진 경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으며, 김태현 회장은 '지난 수년간의 투자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❷

2023년 성신양회㈜ 경영계획보고회

지난 1월 16일 단양공장에서 회장 외 52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계획보고회가 대면으로 시행됐다. 2023년 부문별 주요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가 진행된 가운데, 김태현 회장은 "2023년 경영계획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감안하여 수립한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해 각별히 매진해야"함을 강조하였다.

❸

대표이사 이 · 취임식

지난 12월 1일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사 교육장에서 성신양회㈜ 대표이사 이 · 취임식을 가졌다. 지난 4년간 성신양회를 대표했던 김상규 전 대표의 이임인사에 이어 새롭게 선임된 한인호 대표는 "대내외적으로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기존의 주력 사업인 시멘트 등 건자재 사업의 경쟁력 강화로 회사의 내실을 다지고 해외사업과 친환경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취임인사를 남겼다.

❹

2022년 수능대상자 선물증정

성신양회㈜는 지난해 시행된 수학능력평가시험에 응시한 임직원 자녀들을 응원하고 고득점을 기원하기 위해 대상자 29명에게 5만 원 상당의 응원 선물을 전달했다. 회사와 직원간에 소소한 정을 나눔과 동시에 소통과 협력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❺

성신양회㈜ 단양공장, 동절기 사회공헌 활동 전개

성신양회㈜ 단양공장은 지난 12월 29일 동절기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1천만 원 상당의 이불 200세트를 단양군에 기탁하였다. 기탁된 이불은 성신양회 단양공장 직원들이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 하나인 '월급 끝전 모으기'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성신양회㈜ 단양공장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추위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❻

이웃나눔 봉사활동 전개 - 희망 옷 나눔 및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후원

지난 12월 임직원들은 급여 끝전 모금 300만 원과 직접 모은 300여벌의 헌 옷을 겨울철 노숙인들을 위한 희망의 옷으로 '서울꽃동네 사랑의 집'에 기부했으며, 헌혈증 140매와 급여 끝전 모금 200만 원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후원하였다.

❼

성신레미컨㈜ 2022년도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장관상 등 2개 부분 수상

2022년 12월 13일 한국과학기술회관 SC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2년도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시상식에서 성신레미컨 구리공장과 세종공장이 장관상과 은상을 수상했다. 1994년에 시작된 콘크리트 기술경영대회는 콘크리트 유동성과 압축강도 등을 심사한다. 성신레미컨㈜은 전년도 금상 · 동상 수상에 이어 대회 최고상인 장관상 등 2개 부분을 수상함으로써 성신레미컨 콘크리트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Family **News**

[성신양회]

축하합니다

김동진 사우	단양공장 전기팀	득녀	2022.10.21
서미애 사우	서부지사 청주영업소	본인 결혼	2022.10.23
신익수 사우	前 영업본부	자녀 결혼	2022.10.30
하태수 사우	단양공장	자녀 결혼	2022.11.05
전창근 사우	前 레미컨사업본부	자녀 결혼	2022.12.03
최진주 사우	前 단양공장 생산팀	본인 결혼	2022.12.10
안백현 사우	단양공장 생산팀	본인 결혼	2022.12.18
권오현 사우	前 충청지사	자녀 결혼	2022.12.24
박병건 사우	단양공장 생산팀	득남	2022.12.29

명복을 빕니다

김일섭 사우	단양공장 생산팀	외조모상	2022.10.15
이광훈 사우	단양공장 자원팀	부친상	2022.10.30
서경섭 사우	前 자원팀 반장	빙모상	2022.10.31
강관희 사우	前 구리공장 관리팀	모친상	2022.11.17
김선기, 김훈기 사우	단양공장 생산팀	조모상	2022.11.19
신길선 사우	前 단양공장 생산팀	모친상	2022.11.28
정도섭 사우	前 단양공장 자원팀	빙모상	2022.11.30
이남선 사우	前 단양공장 생산팀	모친상	2022.12.04
권영길 사우	단양공장 생산팀	빙모상	2022.12.08
임필환 사우	단양공장 생산팀	빙모상	2022.12.10
권영산 사우	前 관리지원본부장	빙모상	2022.12.12
도영부 사우	前 춘천영업소장	모친상	2022.12.16
김남신 사우	前 감사실	본인상	2022.12.29
박명석 사우	본사 인사총무팀	부친상	2023.01.01
김갑수 사우	단양공장 생산팀	모친상	2023.01.01
이상현 사우	前 본사 기술지원본부	본인상	2023.01.04

[성신레미컨]

축하합니다

노다영 사우	세종공장 영업팀	본인 결혼	2022.11.05
허성원 사우	구리공장 영업팀	본인 결혼	2022.11.06
박건영 사우	구리공장 품질관리팀	득남	2022.11.17
김민성 사우	본사 재무팀	본인 결혼	2022.11.19

명복을 빕니다

주우식 사우	구리공장 출하실장	모친상	2022.10.30
홍순백 사우	前 세종공장 영업팀	빙부상	2022.11.06
강관희 사우	前 구리공장 관리팀	모친상	2022.11.18
권봉규 사우	본사 재무팀	부친상	2022.12.12

[성신CM]

축하합니다

이영철 사우	생산품질실	득남	2022.12.05

명복을 빕니다

김주환 사우	생산품질팀	빙모상	2022.11.25

서부지사 청주영업소 서미애 사우

성신레미컨 재무팀 김민성 사우

무료한 일상
뒤집기 한판

천마마일리지 포상금 : 1루베(㎥)당 약 1,000원!

도전이
필요하다면
가까이서 찾아라!

천마
마일리지

문의 : 천마마일리지 담당 한길상
TEL 031-570-4103 E-Mail gshan99@ssremi.com

「자원순환 사회의 새바람」

친환경 시멘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2000℃ 고온의 제조공정 특성을 갖고 있는
시멘트산업을 활용하여 순환자원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Cement & Nature

시멘트와 자연이...

하나되다

한국시멘트협회
KOREA CEMENT ASSOCIATION